

## 새마을 운동은 여기서부터...

—『전국직장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에 참석하고—

김 영 속

<서울시지부 상무>

용광로에서 태어난 새얼꾼들이 내일을 개척하는 선구자가 되기 위하여 지난 11월 14일 한국전력주식회사 회의실에서 「전국직장새마을 지도자 협의회」를 구성하였다. 한국전력주식회사 민총식사장을 회장으로 임원 및 회원들은 우리조국 방방곡곡에 더욱 강렬한 새마을 정신의 불꽃을 불이키 위하여 새로운 각오를 다짐한 바 있다.

우리가 현대사에서 볼때 미국이나 서독같은 선진국가들도 강대국이 되기까지는 정부의 피나는 노력과 국민 개개인의 나라사랑하는 마음이 일심동체가 되어 고통과 시련을 극복하며 부조리 타파를 위하여 솔선수범 하였음을 볼 수 있다. 지금 우리조국 방방곡곡에 불붙고 있는 범국민 운동인 새마을운동이 선진국가가 되기 위한 발돋움의 아니겠는가?

나와 나만이 아닌 우리민족 모두가 잘살자는 운동이 곧 새마을운동인 것이다. 한생명체가 정상적인 생성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한분자 한분자의 자유와 협동이 절대 불가결의 요인이 된다는 새마을 지도자 연수원 김준원장의 말씀과 같



· <자재마을 풍은 2동 주민들에게 새마을 교육을 실시하는 서울시 지부>

이 현시국에 있어서의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역할과 협동에 중요함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

“1인은 만인을 위하여 만인은 1인을 위하여” 작은일부터 실천하라는 새마을운동을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인가?

여기 몇가지로 나열해 보면.

첫째—새마을 사업은 내집과 내마을 부터 실천해야 되겠다.

·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남을 시키지 말고 쌓은 한알이라도 흘리지 말고 치약은 1cm만 쓰며 비누는 1회 사용 세번정도만 묻혀쓰고 세탁을 한수도물도 청소하는데 이용하며 전기와 휴지는 최대한으로 아껴쓰고 작은 웃음 이웃끼리 서로 서로 교환해서 입과 뺨뺨을 활용하며 내집 앞은 내가 쓸도록 하자.

· 전라도의 새를 쫓는 노인이나 우리 마을의 재전할아버지(일명—청소할아버지) 그리고 이웃마을의 김장할머니와 같이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내힘에 맞는일을 찾아서 하며 우리마을의 부녀회장은 누구이며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자.

· 둘째—생명이 없는 인조화가 아닌 살아서 움직이는 조각이 되도록 도와주자. 양계교육이 아닌 사랑과 충성과 효도를 우리자신이 몸소실천하여 학교교육에서 소홀해 지고있는 德을 가르쳐 건전한 사고력과 자조성을 지닌 자녀로 기르자.

· 셋째—일가구 일통장이 아닌 일가족 일통장을 만들어 저축하는 국민이 되자.

· 넷째—내가 근무하는 기관을 내집과 같이 사랑하며 아랫사랑을 실천하자.

- 1) 출, 퇴근 시간을 지킨다.
- 2) 수도, 전기, 불뼒을 아껴쓰자.